

오리의 절규도 농민의 눈물도 땅 속에 묻히고...

AI공포

해남 오리농가 현장 르포

1만여마리 살처분 망연자실 농장주 “자식같이 키웠는데” 공무원 “끔찍한 일 이제그만”

26일 찾은 해남군 송지면 H축산 주변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1만 마리가 넘는 오리가 사육됐던 농장이지만 전날 진행된 ‘살처분’ 때문인지 아무런 소리로 들리지 않았고 농장 주변을 지나다니는 주민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농장 입구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농장’이라는 경고성 문구와 ‘사람·차량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 흰색 방재복으로 중무장한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직원이 농가 앞에서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 농장은 24일 1640마리가 폐사하는 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25일 밤부터 사육중인 오리들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다. 고병원성 H5N8형 AI 확진 판정은 26일 내려졌다.

해남군과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이날 방역 요원 85명을 투입, 굴삭기를 동원해 9시간 동안 오리 약 1만 2500마리를 농장 옆에 묻었다.



26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으로 살처분이 끝난 해남군 송지면 오리농장의 황량한 모습. 이 농장에서는 지난 23~24일 오리 1700마리가 폐사한 뒤 시가 의심돼 1만2500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 옆 부지(660㎡)에 오리를 넣은 살처분용 5t 크기의 FRP통(지름 2m·높이 2m) 10개가 묻혔다. 자식같이 키웠는데... 농장주는 망연자실해했다. 농장주는 “며칠 전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폐사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AI 공포가 전파로 확산하면서 나주·영암 지역 등 닭·오리 농가는 불안한

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사육 농가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축사에서 꼬박밤을 새우며 사태 확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 지역 공무원들도 다르지 않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으로 지역 내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 살처분에 들어가는 나주 시정 공무원들의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3년 만에 들이닥친 AI에 초긴장

상태다. 살처분에 앞서 백신 주사를 맞고 방재복과 고글, 마스크, 장갑, 덧신을 지급받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3년 전 명절을 반납하고 확산 방지에 나선 경협보다도 자식같이 키우던 가족을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끔찍한’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적지 않다. 공무원 이모(55)씨는 “자식 같은

오리를 살처분하는 것을 밖에서 말도 못하고 지켜보는 농민 얼굴을 어떻게 또 보느냐”며 고통을 토로했다. 한편, 전남도는 26일 오후 5시부터 H축산 3km 반경에 있는 닭 농가(400수) 1곳과 오리농가(1만8000수) 1곳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나서는 한편, 해당 농가와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절충法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사건 광주지법, 죄는 인정 선고는 유예

검찰, 항소 검토

법원이 절충한 수를 내놓았다. 정부가 ‘국기문란 행위’라고까지 언급했던 ‘공문서 위조’ 당사자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는 유예했기 때문이다.

선고유예는 선고 후 2년간 이상 없이 지내면 무죄와 같은 ‘최저 수준’의 형벌로, 공직 수행에도 영향을 없다. 죄는 인정하되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처벌을 최소화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 24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61)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 사무총장과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여·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애초 위조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김 사무총장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와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1년 6월) 등을 감안했을 때 ‘낮은 형벌’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의의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향후 유사한 국제대회나 국제행사의 유치 신청 과정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차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곧이어 선고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려 5개 항에 걸쳐 제시했다.

당사자들의 반성, 범행의 중대성·심각성을 인식 못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범행에 따른 추가피해가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김 사무총장 등이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세계수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여할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 동료공무원 및 유니버시아드·세계수영대회 관계자들의 선처 탄원 등도 포함됐다. 공문서 위조에 의도나 고의성, 그로 인한 이익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기 문란행위”까지 언급하며 ‘광주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힌 정부나 이를 기반으로 김 사무총장 등을 구속까지 한 검찰은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역 한 인사는 “전국적으로 광주 시와 시민이 매도당하고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사안”이라며 “이번에는 정부가 이를 뒤돌아보고 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의의’라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무죄를 받지 못한 김 사무총장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입장은 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넘어갈 경우 1심에서 재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곧이어 선고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려 5개 항에 걸쳐 제시했다.

/윤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자 죽여 묻었다” 고백 후 분신 택시기사 숨져

피살여성 시신 나누서 발견

40대 택시기사가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은 분신해 숨졌다.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50분께 나주시 다도면 송화리 모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A(여·49)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A씨의 목에서는 부러진 흉기 조각이 나왔고, 저수지 주변에서는 A씨 소유의 피 묻은 가방과 휴대전화기 함께 발견됐다.

경찰의 부검 1차 소견 결과, A씨는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밤 10시40분께 광주시 서구 모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몸매 휘발유를 뿌

리고 분신한 택시기사 정모(48)씨가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23일 점심 무렵 A씨와 광산구 우산동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각자 소주 2병을 마신 뒤 오후 2시30분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각각 운전석과 뒤 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오후 4시10분께 나주시 다도면 자신의 고창집에 들러 삼을 빌리고, 저수지에 들렀다 A씨를 소개받은 뒤 만남을 이어왔으며, 최근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했다는 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여자를 죽여 묻었다.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고백, 밤 10시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

게 큰절을 하고 집을 나섰다.

정씨는 분신 직전 회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 더러워졌다. 미안하다. 휘발유를 뿌리고 죽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씨의 택시 뒷좌석에서는 A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혈흔에 대해 국과수에 DNA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분신한 정씨는 운모에 3도 화상을 입고 다음날인 24일 오후 서울의 한 화상병동에서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혼한 정씨가 최근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은 뒤 만남을 이어왔으며, 최근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어물쩍’

함평 절도 피의자 도주... 관련 경찰들에 경정계 처분

한평에서 발생했던 20대 절도 피의자 도주 사건(광주일보 1월 2일자 6면)과 관련, 경찰관들에게 감봉, 견책 등 경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스스로 만든 ‘피의자 도주 방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건에도, 음주운전 등 다른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수위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절도 혐의 20대 함평 파출소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김모(27)씨가 감자나 소출한 편을 타며, 최근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와 외부 근무자 1명에게는 감봉 3개월, 파출소 내에

나주 배 도둑들 황당 해명 “사람 많고 차 빼라는 소리...”



○-나주의 배 공판장에서 대량의 배를 차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들(광주일보 1월24일 7면)이 경찰에 검거. ○-26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이모(42)씨 등 2명은 지난 21일 오후 1시께 나주시 삼도동 배 공판장에서 교배 ‘형광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에 옮겨 실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경남지역에서 과일가게를 운영 하는 이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나주 배를 구입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에서 “사람도 붐비고, 주변에서 차를 빼라는 소리에 순간 뭉클 마음을 먹었다”며 뉘웃은 후회. /나주=손영철기자 ycon@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3타경 10915	2	동소 111-9 1511㎡	전	57,607,000 57,607,000	수목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111-11 439㎡	임야	10,536,000 10,536,000	분묘소재
	1	순천시 별양면 봉림리 1002-29 969㎡ [공유 지조면적지분3분의1전부] [분묘소재]	임야	6,137,000 6,137,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013타경 12126	1	순천시 별양면 구룡리 189-3 1051㎡	답	21,020,000 21,020,000	수목채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2171	1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14 61818㎡	임야	30,909,000 30,909,000	답
2013타경 12348	1	여수시 봉계동 34 337㎡	답	47,517,000 47,517,000	답
2013타경 12454	1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28 81906㎡	임야	155,621,400 155,621,400	분묘소재
2013타경 12454	2	동소 산32 32529㎡	임야	55,299,300 55,299,300	분묘소재, 일부철
2013타경 12560	1	순천시 서면 지분리 산142 1884㎡	임야	37,680,000 37,680,000	수목채취, 분묘소재
2013타경 13112	1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799 2975㎡	답	148,750,000 148,7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4153	1	순천시 황전면 황곡리 496 228㎡	대	3,648,000 3,648,000	의견없음
2013타경 14481	1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414 2631㎡	답	33,172,000 33,172,000	수목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4702	1	광양시 옥곡면 옥곡리 1139 436㎡	답	52,582,000 52,582,000	임야,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3235	1	사동면거지:광진군 선면면 송계로764 등특이번호:전남878143559 차명:한복40피트 컨테이너차시 번호:2008	자동차	9,000,000 9,000,000	
2013타경 10526	1	선착장:여수시 01070096468205 선박의종류:선박 외명칭:동력선 한일호 선질:FRP 총톤수:4.97톤 기관의종류와수:육상차량용 디젤기관, 315.000마력, 1대	선박	25,000,000 25,000,000	진수년월일:2001년7월11일, 추진기외종류와수:나선원동기추진기1기
2013타경 17712	1	순천시 해룡면 위안리 92-2 1총442.78㎡ 2총442.13㎡ 3총442.13㎡ 4총442.13㎡ 5총43.32㎡ 지하층363.60㎡	대	3,475,007,000 3,475,007,000	수목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2614	1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 910-4 8299㎡ 제시외 소매점 등 206.7㎡ 캐노피 등 2식	대	1,019,084,400 1,019,084,400	임야,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13563	1	여수시 학동 83-2 374.1㎡ 여수시 가북면공영리 6-4 1총208.17㎡ 2총196.02㎡ 3총196.02㎡ 4총196.02㎡ 5총96.02㎡ 지하층202.55㎡ 제시외 주방 등 7	대	958,119,250 958,119,250	임야, 농지취득자격증명요